



[금융] 하나금융그룹 “3대 경영원칙으로 모두의 가치창출 실현” 05



Life

[산업] 한화사 장남 김동관 전무 부사장 승진 06



엄마 마음으로 ‘솔솔’... 스포츠 꿈나무에 ‘희망의 새살’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동국제약

50년째 국민 상처치료를 책임지는 ‘마데카솔’은 수익금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축구와, 야구 꿈나무 육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이 상처를 치료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스포츠 꿈나무를 키우는 마음이다.

동국제약 마데카솔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브랜드로, ‘마데카솔케어연고’ ‘복합마데카솔연고’ ‘마데카솔분말’ ‘마데카솔연고’ ‘마데카솔윤벤드’ 등 시리즈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 꿈나무 키운다

동국제약은 대표적으로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한국리틀야구연맹을 통해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활동들을 후원해, 장기적으로 한국 스포츠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유소년 상비군(대표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유소년 대표팀의 유니폼 제작 등에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공식 후원사로 나서고 있다. 이 협약으로 우리 유소년축구 대표팀은 ‘마데카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각종 국제 대회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은 한국축구협회의 산하 기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와 ‘경주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고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국제약은 2012년부터 매년 어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마데카솔연고와 총 20여종의 구급용품이 담겨진 구급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마데카솔 클린상’을 후원하고, 9개 팀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마데카솔 클린상’은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스포츠맨십을 심어주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본선 토너먼트 진출팀 중 입상자를 제외하고, 경고(옐로카드)를 가장 적게 받은 9개 팀을 선정해 트로피와 부상(스포츠용품)을 수여했다.

또 2011년부터 한국리틀야구연맹을 통해, 매년 국제 친선 교류전을 갖는 리틀야구 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한·미 친선 교류전’을 치르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리틀야구 대표팀에게 현지에서 사용할 야구용품과 구급함을 전달했다.



동국제약 직원들이 지난 7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산행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마데카솔연고 등 구급용품 20여 종이 담긴 구급함과 야구용품 등을 전달했다.



서호영 동국제약 상무(오른쪽)와 김영균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회장이 후원협약식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동국제약

마데카솔 수익금 일부 사회 환원 스포츠 꿈나무 육성 적극 동참

유소년 축구대표팀 유니폼 지원 리틀야구대표팀 용품·구급함 전달

국립공원에서 안전한 산행 독려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와 봄 나들이 행사도



동국제약 서호영(오른쪽 두 번째) 상무가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왼쪽 세 번째) 회장, 양측 관계자들과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리틀야구연맹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취지 아래 크고 작은 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리틀야구 대표팀은 그에 힘입어 세계리틀리그 월드컵시리즈에 진출해 2014년과, 2015년 우승에 이어 2016년 인터내셔널 그룹 우승의 쾌거를 거두었다. 동국제약은 2016년에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리틀리그 아시아-태평양&중동지역 대회(APT)’를 후원한 바 있다.

◆건강한 산행을 돕는다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수익금은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우리아이 안전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봄나들이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은 2009년부터 동국제약과 국립공원공단이 체결한 ‘안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에 따라, 매년 봄·가을에 전국 주요 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국가

기관과 민간 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소아암 어린이 봄소풍’을 행사에 경비 전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전남 등 4개 지역별로 나눠 각각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지역 행사에는 동국제약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봄 나들이를 돕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매년 ‘우리아이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야외활동 시간편하게 지참할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휴대용 구급가방을 전국의 보육시설 1000곳과 녹색어머니중앙회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구급가방에는 마데카솔연고를 비롯해 밴드, 거즈, 반창고 등 구급용품이 구비되어 있어,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풍,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유용하다.

동국제약 이처럼 동국제약은 크고 작은 사회공헌활동 통해 착한 브랜드, 착한 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